

투데이 칼럼

든봉샘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을 이루는 한 요소이다. 동식물 생명의 탄생 성장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물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 물이 풍요롭고 흐름이 자유로우며 원활하면 그 생명체는 튼튼하고 건강하며 오래도록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하기에 물이 모이고 흐르기 시작하는 샘은 소중하며 많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어 경외스런 장소로 여기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도시의 형성도 물의 흐름을 따라 크기와 융성 쇠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도시를 조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어 좀 더 편리하지만 이전에는 물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도시가 이루어졌다. 물을 멀리까지 보내는 능력을 갖추었던 로마제국이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것이 좋은 본보기라 생각하며, 동양의 왕조국가에 치산치수가 국왕의 통치덕목으로 중요시 하였



박 현 식

장수군 기획조정실장

던 것도 그 예라 본다. 그러하였기에 우리 인류는 일찍부터 물을 소중하게 여기며 중요하게 다루는 역사를 만들어 왔다고 본다. 삶에서 물로 인해 생활의 장애가 될 때에는 극복을 위해 배와 수차, 보 등의 도구와 방안을 찾아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조직의 힘을 키워나갔다. 깨끗하고 순결한 물은 더욱 중시하였다. 어릴적 어른들이 '상류 물'을 더럽히면 '날벼락'을 맞는다'며 경각심을 주었던 말과 지금은 거의 사라진다. '정화수' 때 놓고 소원을 빌던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 등에서 그러한 정신을 느낄 수 있다.

한 국가의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를 감안 했겠지만 순결하고 깨끗한 물을 때서 하늘의 기운을 빌고자 하였다. 더 많은 고심을 하고 고르고 하였을 것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그 생명을 다하여 가고 있는 '고려'를 새롭게 하기 위했다. 새나라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큰 힘을 얻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힘을 얻을 장소 중 한 곳으로 장수에 있는 '든봉샘'을 선택했다. 이곳에서 영험한 기운을 받아 건국을 준비를 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하여 온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장 장수(長水)! 남쪽의 남원에 있는 지리산, 북쪽 무주에는 덕유산 이라는 걸출한 산과 그 준령의 사이에 자리하여 웅장하거나 수려한 산세를 갖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과 섬진강의 시작을 알리는 고장이다. 두 강물을 서로 나누어 보내는 '수분령'이라는 장소도 있다. '긴 물길'이 있기에 우리 고장이 장수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 하지만 나를 비롯한 많은 군민은 장수(長水)라는 말에는 조선의 건국에 도움을 주었다. 금강과 섬진강 물의 출발점이라는 의미를 덧붙이는 '최상위, 이른 물'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본다. 요즈음 장수에서는 장영수 군수와 군민들이 '든봉샘'의 맑은 물 떠놓았다. 우리고장과 대한민국이 축구와 더불어 살림살이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라고 그 힘을 모으고 있다.

사설

전북 대도약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전북도는 대도약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겠다.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면 난맥상이 여기저기 도드라져 있기에 하는 말이다.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예타면제를 줬지만 다른 지역도 예타면제를 줬지만 다른 지역도 예타면제된 사업들이 많기에 실제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무슨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제3금융중심도시 지정 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금이다. 전담 조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던 것은 그래서일 터이다. 그리고 임실군의 폐기를 처리 건도 그렇다. 법정 소송으로 장기화될 조짐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후 이렇다할 후속 보도가 없으니 답답하다. 저번에 전북도와 임실군이 팔척 뒀던 것을 생각하면 곧바로 해결될 것처럼 요란스러웠는데 말이다. 전북도의 대도약 행보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단순히 보도용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발전 현안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이야기도 그렇다. 과거처럼 눈치보기로 세월을 보내서는 곤란하다. 아니면 말고라며 뒤로 물러나 주춤거리신 안된다. 그래서 지난날 여러 번 말했던 것을 또 말하고자 한다.

전북 발전을 저해하는 다른 지역의 반발이 세다고 해서 기가 죽어선 안 된다. 전북도는 발전 의지를 힘차게 밀어부쳐야 한다. 때로는 경쟁도 불사하고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 군산 경제가 무너졌는데도 여태 재육을 쟁기지 못하고 있음은 전북도의 행동의지가 강하지 못한 탓이다. 전북도는 발전의지를 말로만 표출해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도민의 관심사인 새만금 사업도 그렇다. 지난 수년간 내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이 미미하다. 큰 돈이 되는 일거리마다 의지업체가 다 챙겨 먹는 것 또한 통탄할 일이다. 전북도는 대도약의 주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터이다. 전북도는 다른 지역만큼 우리 지역도 잘사는 고장이 되도록 힘 써야 한다. 그리고 당부할 것이 있는데 전북도는 스스로 감내해야겠다. 도내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거듭 거듭 발생했는데 그걸 덮어둔 채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대도약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겠다.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지역 발전 도모를

전북도는 상반기에 예산 집행을 신속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연초에 있었던 보도가 다시 생각나는데 역대 최대 수준인 3조 5347억 원을 풀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지난해 연말 7조32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을 두고 자축하던 것이 생각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 전북도가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만금 SOC 예산이 사상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해 1조 1186 억 원을 확보한 것은 평가의 대상이라고 했는데 그쪽에도 신속한 투자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지난 수 년간 예산 7조원 시대가 열리기를 열망한 만큼 재정의 신속한 집행은 필수적이다. 재정의 신속한 집행으로 전북도는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지역 발전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지난날에도 여러 번 반복했던 바이지만 지금은 도민의 정서가 다르다. 과거와 같은 정도로 지역 발전 요구를 받아들이는 안 된다. 전북도는 예산과 관련하여 왕성한 식욕을 나타내야 한다. 신속한 예산 집행도 실효발휘가 아닐 수 있는데 전북도는 왕성한 식욕을 도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렇다.전북도는 신속한 예산 집

행으로 실효발휘를 해야 한다. 전북도는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발전 방향을 선도해야 한다. 전북도는 화이부동의 정신을 여러 번 말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풀이켜 생각해보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바로 그 화이부동의 정신으로 전북도는 지역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지역 발전으로 전북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전북도가 전체 예산의 66.5%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한 것은 도민의 발전 열망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하다. 다들 목도하는대로 우리 지역은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 다른 고장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낙후된 채로 있다. 고장의 발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전북도는 앞에서 독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북도는 배정된 예산을 온전히 지역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전북도가 도민의 여망을 받들어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과반을 훌쩍 넘는 돈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실천해주기 바란다.

독자제언

정당한 공권력과 인권보호의 조화

2015년~2017년 8월까지의 3년간 수사관 교체요청건수는 총 5,122건이다. 2015년에는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의 기타사유가 1,247건으로 62.9%, 2016년에는 1,166건으로 약 60%, 2017년 8월까지의 자료에는 659건 54.9%로 나타났다. 수치는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수사관의 위압감, 조사태도 불친절 등이 수사관교체 요구사유 중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수사관 교체 요청이란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 편파수사, 청탁의혹, 욕설, 가혹행위, 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이다.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존중과 자유권의 최대한 보장, 잠정권, 국가에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청구권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은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다. 인권 없이는 그 어떤 사건의 실제적 진실도 있을 수 없다. 시대가 변할수록 그때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달라진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근대 이후부터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남아있다. 국민은 공직자로부터 존중 받기를 원하고 공적인 일이다. 사적인 일 모두 개인의 인권을 침해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국민들이 경찰에 바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을 것이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공권력과 인권보호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김철호 원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브라질군 오인 사격으로 차량 탑승자 사망



7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인근 과달루페 거리에서 한 여성이 군 병사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차 안에서 숨진 운전자 산투스 호자의 시신을 보여 오열하고 있다. 현지 관계자는 군인들이 산투스 호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범행 차량으로 오인, 이 차량에 80발의 총격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호자가 숨지고 동승했던 다른 2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